

위협받는 시민 위생... 숙박·목욕탕 등 10곳 중 3곳 불량

서울시, 숙박·목욕탕·세탁업소 점검 8326곳 중 3072곳 '백색등급' 받아

서울시가 숙박·목욕탕·세탁업소 8326곳의 공중위생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결과 10곳 중 3곳이 집중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는 시내 숙박·목욕탕·세탁업소 총 8892곳 중 8326곳(93.6%)을 대상으로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에서 90점 이상을 받은 업소에는 녹색등급(최우수 업소)을, 80~89점의 업소에는 황색등급(우수업소)을, 80점 미만 업소에는 백색등급(일반관리대상업소)을 부여했다. 이번 평가에서 위생관리가 필요한 백색등급을 받은 업소는 3072곳(36.9%)에 달했다. 녹색등급은 2983곳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결과〉 (단위: 개소)

구분	총계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	
대상업소수(A)	8,892	2,922	949	5,021	
평가업소수(B)	8,326	2,695	887	4,744	
평가등급	90점 이상(녹색등급)	2,983(35.8%)	1,262	458	1,263
	80점~89점(황색등급)	2,271(27.3%)	615	284	1,372
	80점 미만(백색등급)	3,072(36.9%)	818	145	2,109
평가실시율(B/A)	93.6%	92.2%	93.5%	94.5%	

/자료=서울시

(35.8%), 황색등급 2271곳(27.3%)으로 조사됐다.

공중위생서비스평가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해 격년으로 진행된다. 짝수해(2018년)에는 숙박·목욕탕·세탁업소를 평가하고, 홀수(2019년)해에는 이·미용업소를 점검한다.

시는 시설 및 설비기준, 위생관리기준 준수 여부, 기기류 오염도 측정 등 업종별로 26~27개 항목을 평가한다. 숙박업의 경우 먹는물 수질기준 적정 여부, 생수병 재활용 및 침구류 재사용 여부를 점검한다. 세탁업은 회수건조기 설치 여부와 드라이클리닝용 세탁기의 유·무 기준 점검 여부를 확인한다. 목

욕장업의 경우 욕조수 및 먹는물 수질 기준 적정 여부와 찜질방 내 공동개인용품의 위생상태를 점검한다.

올해 1월 기준으로 시내 공중위생업소는 총 4만873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미용업소가 2만6027곳으로 가장 많았다. 세탁업소 4943곳, 건물위생관리업소 3182곳, 숙박업소 3083곳, 이용업소 2644곳, 목욕장업소 947곳 순이었다.

점검반이 ATP 측정기(세균오염도 측정기)로 공중위생업소의 정수기 코크, 매트·베게 등 234건을 확인한 결과 66건(28.2%)에서 기준치를 초과한(400RLU 이상) 오염물질이 측정됐다.

시는 "관련 규정이 없어 기준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 세척 후 재측정하는 등의 행정지도를 했다"며 "점검 현장에서 세균오염도를 ATP 측정기로 확인 시킴으로써 업주의 긍정적 피드백을 유

도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올해 서울시 내 이·미용업소 2만8671곳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을 벌인다. 분기별로 2회씩 총 8회 이상 실시한다.

이용업소는 변태·퇴폐영업을 막기 위해 칸막이와 밀실 설치 여부를 점검한다. 빗·가위·면도기·전동칫솔기의 위생상태도 확인한다. 미용업은 점빠기·긁볼뿔기·쌍커풀수술·문신·박피술 등 유사 의료 행위 여부, 소독장비 구비 여부, 미용기구 위생상태 등을 점검한다. 영업장 면적이 66㎡ 이상인 경우 옥외가격표시제를 지켰는지도 살펴본다.

시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를 실시해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시민 건강보호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해5도 어장확대... 평화 경제의 바닷길 열려

인천시 확장으로 어획량 10% 이상 늘어나 여의도 면적 84배, 조업시간 연장



확장된 서해5도의 새로운 어장에서 첫 조업이 시작됐다. /인천시

확장된 서해5도의 새로운 어장에서 첫 조업이 1일 시작됐다.

서해5도 어장확대는 지난해 4·27판 문점 선언 이후 인천시가 지역 어민의 권익을 위해 중앙정부와 적극 공조해 민관이 함께 긴밀히 협의를 진행한 결과 지난해 '어선안전조업규정'을 개정했다.

이로인해 서해5도 어장은 1일부터 1614㎢에서 1859㎢로 245㎢(15%) 확대됐다. 1964년 이래 금지되었던 야간 조업도 1시간 연장됐다.

늘어나는 어장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84배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기존 연평

어장 좌우로 각각 46.6㎢, 43.7㎢씩 확대되고 백령, 대청, 소청도 남쪽으로 154.6㎢규모의 어장이 새로 생겼다.

서해5도 어장 확대는 남북평화시대 해결과제 중 국민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첫 상징적 조치이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서해5도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함을 확인 시켜준 변화다.

그동안 서해5도는 북방한계선(NL

L)을 바로 앞에 둔 접경지역이어서 조업과 어업구역이 엄격히 제한돼 있어 어업활동에 지장이 많았으나 이번 조치로 어민들은 한층 넓어진 어장에서 조업할 수 있게 됐다.

해수부도 이번 어장확장으로 어획량이 10%이상 늘어나 어민 수익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서해5도에서는 백령도 92척, 대청도 62척, 연평도 45척 등 202척의 어선이 꽃게·참홍어·새우·까나리 등을 연간 4000t가량을 잡아 300억원의 어획고를 올리고 있다.

성도경 연평도 어민회장은 "우리가 어장 확장을 요구한 지역은 서북간 쪽으로 많이 했는데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이쪽에서도 어업 활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인천=최영주 기자 choiyj@



1일 오전 서울 경복궁 경회루

“조선시대 임금이 연회를 베푼 곳입니다”... 경회루·집옥재 개방
에서 시민들이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문화재청은 경복궁에서 조선시대 임금이 연회를 베푼 장소인 경회루(慶會樓)와 고종이 서재 겸 사진 접견소로 사용한 집옥재(集玉齋)를 10월 31일까지 7개월간 개방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서울시, 유희부지 활용 아이디어 129개 선정

한강-난지도공원-하늘공원 연계 제시



도심 유희부지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대상작(조용준). /서울시

서울시는 도심 유희부지 활용 아이디어를 공모, 총 179개 작품 중 129개를 선정해 시상한다고 1일 밝혔다. 심사 결과 대상 1작품, 최우수 6작품, 우수 41작품, 입선 81작품 등 총 129개 작품이 선정됐다.

한강-난지도공원-하늘공원을 연계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한 조용준 씨 작품이 대상작으로 뽑혔다. 대상작은 쓰레기 매립장에서 생태공원으로 복원된 도시재생의 상징적인 지역이 된 한강-난지도공원-하늘공원을 잇는 아이디어를 냈다. 하늘공원과 한강을 연결하는 보행공간을 만들어 주변시설과 연계하고, 계절별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복합엔터테인먼트를 제안했다. 보행로 주변에는 미세먼지 측정, 공기정화, 오염 상태를 시각화하는 타워를 설치해 거미줄처럼 연결했다.

도시의 저이용 공간을 활용해 미세

먼지에 대한 도시적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했고 물리적 디자인과 프로그램 조화가 균형감 있게 구성됐다는 심사평을 받았다.

최우수상은 서초구 효령로고가상부를 다리로 연결해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김진화)과 차량 통행이 잦고 주변이

저층 주거지인 연희 IC의 특성을 살려 자동차 세차장, 빨래방, 목욕탕을 구상한 아이디어(송지후) 등 6개 작품이 채택됐다.

시는 4일 오전 10시 돈의문박물관마을 도시건축센터 1층에서 시상식을 개최한다. 대상 및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500만원의 상금과 상장·상패가 주어진다. 우수상에는 상금 100만원과 상장·상패를, 입선 수상자에게는 상장·상패만 수여한다. 이날부터 17일까지 서울도시건축센터에서는 수상작 전시가 진행된다. 전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람할 수 있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김태형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장은 “도심 토지 자원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 공공 유희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서울시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에 선정된 아이디어의 실행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서울대입구역에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민간임대 170세대 등 총 201세대
올 착공... 2021년까지 입주 완료



서울대입구역 역세권 청년주택 조감도./서울시

오는 2021년 서울대입구역에 역세권 청년주택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관악구 봉천동 854-3번지 일원 서울대입구역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대입구역 역세권 청년주택은 부지면적 2000㎡ 이하의 비촉진지구 사업이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도지역 변경 없이 기본 용적률 900%를 적용해 지하 2층~지상 20층, 연면적 8280.10㎡ 규모로 지어진다. 공급 세대수는 공공임대 31세대, 민간임대 170세대 등 총 201세대다.

지하2층~지상2층은 근린생활시설로, 지상3층~20층은 청년주택으로 계획됐다. 특히 지상 3층에는 입주자를 위한 커뮤니티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시는 올해 9월 착공해, 2021년까지 공사를 마치고 입주를 완료할 계획이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2월 ‘공적임대주택 5개년 공급계획’을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역세권 청년주택 8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태릉입구역 역세권 청년주택을 시작으로 지속 발굴·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